

서울의 고용수급 실태와 청년실업 II

들어가며

○ 완전고용의 시대에서 구조적 실업의 시대로

- 지난 1988년 완전고용에 가까운 2%의 실업률에 도달한 이후, 외환위기가 도래하기까지 10년간 주기적인 등락은 있었으나 대략 2%의 실업률을 유지
-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최고 7.7%에 달하는 유례가 없는 실업대란을 경험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3%의 수준으로 안정화됨
- 이러한 변화 속에 기업들의 구조조정 상시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을 계기로, 최근에는 실업이 구조화되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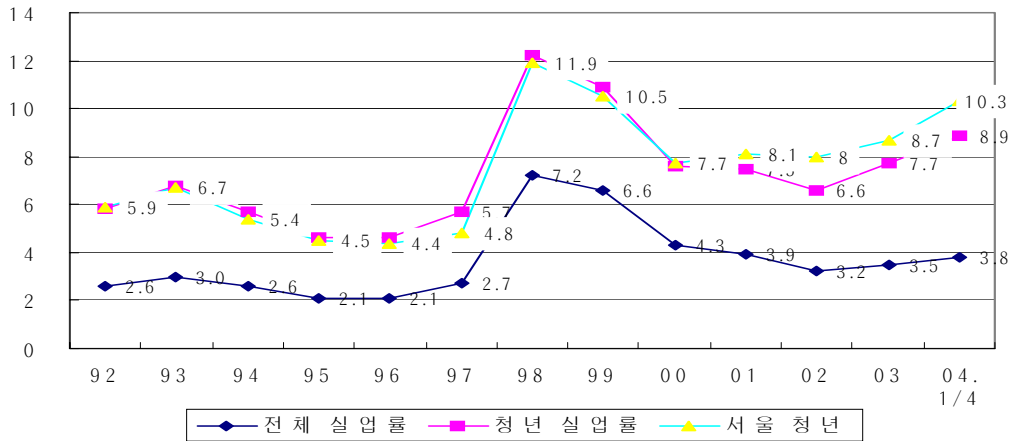
○ 현대적 실업의 새로운 양상들

- 과거 완전고용의 시대와 달리, 최근 구조적 실업의 시대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식기반화 추세를 매개하여 노동시장이 분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결과로 ‘고용과 실업의 계층화’가 심화됨
- 이와 함께, 현대적 실업이 나타내는 다른 양상은 ‘실업이 장기화’(6개월 혹은 12개월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된다는 점으로, 장기실업자는 구직의욕 상실과 고용주의 채용기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실업의 장기화를 심화시키는 실업의 악순환을 초래함
- 이와 같이 실업의 계층화와 실업의 장기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적 실업이 첨예하게 표출되는 접점이 청년실업(15~29세 실업)임
- 본고에서는 이미 「경제브리프」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서울의 청년실업 문제를 서울의 노동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서울의 청년실업과 노동수급 실태

○ 서울의 청년실업

- 현대적 실업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특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년실업은 최근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그림 1]과 같이, 98년 11.9%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2년 6.6%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여 2004년 1/4분기에 8.9%를 기록함
- 서울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04년 1/4분기 현재 10.3%로 전국의 청년실업률을 1.4% 상회하며, 전국 실업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실업의 계층화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서울의 대졸자 취업률은 전국의 66.2%, 수도권 취업률 64%보다 낮은 59.5%를 기록하고 있음(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림 1] 한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1992-2003년, 단위: %)

○ 청년층 일자리 질 저하

- 청년층 일자리의 양적 저하와 함께 청년층, 특히 대졸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도 청년층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요소임

-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대졸취업자에서 관리·전문직과 기술직 등 이른바 선호 직종의 비중이 주는 대신, 서비스·판매직 비중이 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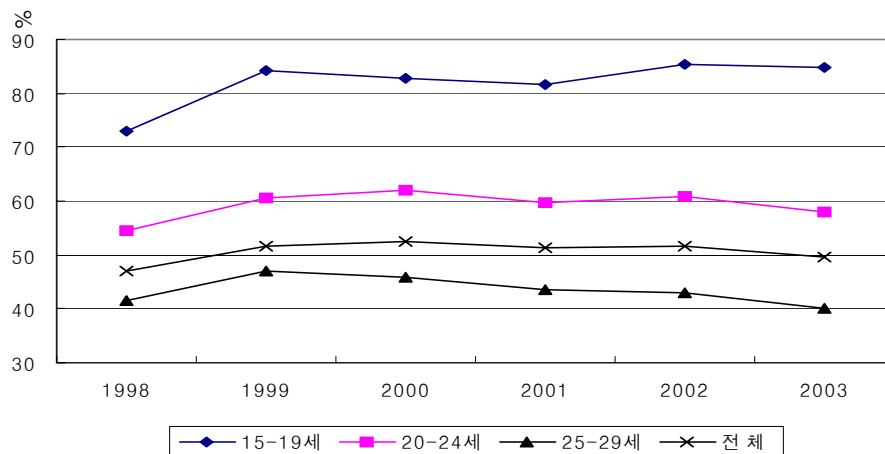
·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월급여수준이 평균보다 20~60만원 적고, 근로시간도 16~36시간 많음

[표 1] 대졸 및 고졸 취업자 진로 비중 (단위: %)

구 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대졸 취업 자	관리·전문직	31.0	28.4	26.2	28.6	30.1	27.5
	기술직	21.1	21.7	22.8	20.1	20.4	19.6
	사무직	27.6	29.3	32.2	29.6	28.1	27.8
	서비스·판매 관련직	9.9	11.0	10.4	10.2	10.9	15.7
진로 비중	생산 관련직	6.0	5.5	4.7	7.6	7.5	6.4
	단순노무직	0.6	0.8	0.7	1.0	0.8	1.0
	기타	3.8	3.4	3.0	3.0	2.1	2.1

주 : 관리·전문직 =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생산관련직 =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기타 = 농업 및 어업 근로자, 군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호.

-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에 있어서도 청년층이 가장 취약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실제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10대의 경우 80% 이상을 기록하고 20대의 경우에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청년층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 추이

-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전반적인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가 단순히 일자의 절대적 부족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임
 - 고용수급 불일치(job mismatch)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력수요동향조사」와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함
 - 「노동력수요동향조사」(노동부)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표본사업체(13,800개)를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 조사한 것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원자료를 분석함
 -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 표본(5,957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활동, 구직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원자료를 분석함

서울시 노동력 수요 및 구직 실태

- 서울의 노동력 수요 : 일반 현황
 - 서울의 산업인력 부족률은 02년 1.14%를 정점으로, 99년 0.48%에서 03년 0.79%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의 산업인력 부족률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러한 양상은 인력 부족이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기인함
 - 비제조업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의 잠재적 인력부족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실제, 소기업과 중기업 사이에도 인력부족률은 3~4배 정도를 차이를 보임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2003년 현재 0.84%로 서울의 평균 산업인력 부족률 0.79%를 상회하고 있어, 서울의 경우에도 제조업체들은 비교적 높은 인력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 인력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부문은 운수, 창고, 통신업으로, 02년 3.2%, 03년 3.4%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외에 도소매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도 비교적 높은 부족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2] 서울의 산업별 인력부족률 추이(대분류, 1999~2003) (단위: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전국의 노동력 부족률	0.11	1.26	1.28	2.49	2.18
서울의 노동력 부족률	0.48	0.81	0.5	1.14	0.79
제조업	0.58	1.48	0.64	1.47	0.8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0	0.00	0.40	0.65	0.11
건설업	0.27	0.14	0.24	0.51	0.4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0.73	0.96	1.23	0.93	0.95
숙박 및 음식점업	0.16	0.53	0.42	0.84	0.6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0.78	1.01	0.80	3.15	3.39
금융 및 보험업	0.85	0.49	0.11	0.30	0.0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31	0.75	0.42	1.14	0.60
교육서비스업	0.03	0.26	0.28	0.36	0.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22	0.39	0.10	0.14	0.03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0.15	0.43	0.57	0.59	0.19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주요 업종별 노동력 부족 실태

- 앞서 전체적으로 전국보다 낮은 부족률 속에서 일부 부문을 중심으로 한 높은 부족률 양상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해 부족률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업, 가구제조업 등 생활형 제조업 내지 도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이외에 조립금속제품,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등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는 기술변화와 인력이동이 활발한 업종임을

반영하여 인력부족률이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가령, 00년, 02년)을 나타냄

- 한편, 서울 산업경제에서 핵심을 이루는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부족률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 운송업의 경우, 03년 현재 부족률이 10.7%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구개발업, 기계장비 임대업, 통신업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업도 1% 이상의 높은 부족률을 나타냄
 - 이외에 부동산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3] 서울의 주요 서비스업종의 인원 부족률 (단위 :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육상운송업	1.98	2.90	1.68	7.19	10.7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0.68	0.23	0.32	0.70	0.07
통신업	0.13	0.25	0.03	0.44	1.07
금융업	0.00	0.07	0.21	0.14	0.01
보험 및 연금업	0.04	0.52	0.00	0.29	0.01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66	1.22	0.00	0.69	0.16
부동산업	0.20	0.13	0.25	0.30	0.63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0.59	1.55	0.51	2.52	1.5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0.73	1.44	0.92	2.07	0.59
연구 및 개발업	0.13	3.07	0.22	1.32	2.32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0.13	0.33	0.22	0.68	0.40
교육서비스업	0.03	0.26	0.28	0.36	0.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22	0.39	0.10	0.14	0.0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01	0.89	0.27	0.73	0.43
회원단체	0.02	0.80	0.82	0.94	0.3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0.15	0.25	0.38	0.26	0.09
기타 서비스업	0.41	0.00	1.64	2.87	0.00

출처: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서울시 청년층의 구직실태

-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우선 청년층의 평균 구직기간은 평균 8.5개월로 실업의 장기화가 확인되고 있으며, 여성(9.2개월)이 남성(7.6개월)보다, 대졸자(10.6개월)가 고졸자(7.3개월)보다 훨씬 긴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특정 업종/직종에 대한 남성 대졸자의 강한 선호를 반영함
- 희망 업종으로는 제조업의 15.4%에 비해 서비스업이 64%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와 함께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55.5%(대졸자의 경우 68.3%)로 그 선호가 극히 높은 수준임
 - 그 이유로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높다가 42.8%를, 근무환경이 좋다가 16.7%를, 그리고 창업을 위한 경험의 축적이 14.9%를 응답함
 - 이는, [표 5]에서와 같이 낮은 발전가능성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사유에서도 다시 확인됨

[표 4] 청년층의 취업 희망 산업(2002년 현재)

	구 분				전 체	
	중고생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인원	비율(%)
서비스업	50	181	165	136	532	64.0
제조업, 광업	11	43	30	44	128	15.4
농림어업 및 기타산업	11	79	43	38	171	20.6
합계	72	303	238	218	831	100.0

출처: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 2002.

[표 5]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이유

	구 분				전 체	
	중고생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인원	비율(%)
보수가 적어서	5	25	16	12	58	12.3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재위험 등이 있어서	9	56	29	16	110	23.4
숙련기술과 기술습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5	8	9	7	29	6.2
장래성과 발전가능성이 낮아	24	105	58	52	239	50.7
기 타	0	13	11	11	35	7.4
합 계	43	207	123	98	471	100.0

출처: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 2002.

○ 청년층 일자리 선호체계의 배경

- 이처럼 대기업, 특정 업종 및 직종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의 일자리 선호체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 이미지 외에 현실적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앞서, 응답된 장래 발전가능성이나 열악한 작업환경 외에, 보수도 조사결과로는 낮은 응답을 보였지만 매우 중요할 이유일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청년층 구직자의 의중임금 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졸계층의 경우 희망 연봉수준은 1500~2000만원이 36.1%, 2000~2500만원이 27.9%를 차지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기대수준을 보임
 - 2002년 현재, 서울의 월평균 임금 153만원(연봉 환산 1천8백4십만원, 노동부 임금통계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별로 30만원~73만원의 임금격차가 존재함

정책적 시사점

- 청년실업과 고용수급상의 불일치
 - 청년층의 구직실태는 특정 업종/직종, 기업규모에 대한 강한 선호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서울 소재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인력공급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노동수요측(기업)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청년실업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업종 및 직종에서 인력, 특히 경력직 인력의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구조적 딜레마가 초래되고 있음
- 고용수급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구인기업에 대해 비경력 신규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체계를 갖추는 한편, 청년층의 기대수준을 낮추되 경력을 우선 배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직에 대한 임금보상 인센티브가 필요함
 - 고용장려금의 지급과 함께, 청년층의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bs66@sdi.re.kr